

딱딱한 법전 대신 체험과 공연이 가득... 놀이로 깨닫는 법의 가치

- 법무부, 제63회 법의 날 맞아 '2026 법페스티벌' 개최
- 대전·부산·광주 솔로몬로파크에서 펼쳐지는 시민 참여형 법 축제

딱딱하고 어려운 법을 공연과 체험으로 풀어내,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즐기며 법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하루가 펼쳐진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오는 4월 25일, 제63회 「법의 날」을 기념하여 온 가족이 함께 즐기며 법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2026 법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대전·부산·광주에 위치한 솔로몬로파크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특히 '어렵고 딱딱한 법'이라는 편견을 깨고, 시민들이 일상속에서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도록 공연과 체험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솔로몬로파크

-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법교육 테마파크로 헌법과 기본권, 모의국회, 모의법정, 과학수사 등을 체험하는 「법체험관」, 아동의 안전·배려 및 규칙 준수 등을 경험할 수 있는 「법놀이터」로 구성
- ▶ 국민 법의식 향상을 위해 '법체험 해설, 청소년·성인법교육, 법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헌법 퀴즈쇼, 가족 대항 생활법률 O, X 퀴즈, 환경인형극, 어린이 유괴 예방 뮤지컬 등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경찰서·소방서·어린이교통공원·아동보호전문기관·마약 퇴치운동본부 등 총 43개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체험 부스 등을 통해 생활 속 유익한 법률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시민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계획이다.

행사는 누구나 별도의 예약 없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상세 정보는 각 솔로몬로파크 홈페이지(주요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기관명 검색) 및 공식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solomon_lawpark_official)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이번 법페스티벌이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에게는 법에 대한 친밀감을, 성인들에게는 법치주의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법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지수 (02-2110-3468)
		담당자	사무관	임성숙 (02-2110-3321)



붙임1 법페스티벌 현장 사진(2025년)

※ 현장 실사 사진이며, 참여자의 얼굴은 시로 변형(또는 마스크) 처리함

(대전솔로몬로파크) 법퀴즈, 법령체계 부스



(부산솔로몬로파크) 모의국회, 안전우산 만들기



(광주솔로몬로파크) 행사 전경, 청소년 범죄예방 홍보 활동



붙임2 솔로몬로파크 현황

○ 기관 개요

	대전솔로몬로파크	부산솔로몬로파크	광주솔로몬로파크
기관			
위치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219-39 (유성구 원촌동 244)	부산 북구 낙동북로 755 (북구 구포동 782-43)	광주 북구 오문로 244 (북구 문흥동 88-9)
홈페이지	https://solomon.lawnorder.go.kr/dj	https://solomon.lawnorder.go.kr/bs	https://solomon.lawnorder.go.kr/gj
프로그램	· (법체험) 헌법, 선거, 모의법정, 과학수사 등 다양한 주제의 법체험관 운영 · (법연수) 시민로스쿨, 어린이·청소년 법캠프, 학교 법진로체험 등 법연수관 운영 · (법페스티벌) 법의날, 제헌절 등 지역주민 참여 법페스티벌 문화축제 개최		

○ 시설 및 교육활동 사진

헌법체험관 	선거체험관 	모의국회 
법페스티벌(체험부스) 	청소년 법연수 	다문화 가족 캠프 